

글로벌 전주,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넘어서다

전국 유일 '세계문화주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프랑스, 영국, 미국을 거쳐 올해 4 회째를 맞는 스페인 세계문화주간 행사가 열린다.

을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벨트 조성, 전주4대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세계 속의 인문도시 구축 등 글로벌 문화관

는 문화도시들과 문화교류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기도 했다. 이와 함께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수공예도시 도약, 투브르 박물관과 유네스코, 바티칸이 주목한 전주 한지, 미국의 영화평론잡지 '무비메이커'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꼽는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 유일 세계문화주간 전주 개최, 문화교류 확장

▲전통으로 빛나는 글로벌사업, 세계가 인정하다

전주 프랑스 위크를 시작으로 영국문화주간 미국주간 등 개최 '큰 호응' ... 올해는 '스페인주간'

에서 전주음식과 전주한지 등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스페셜'을 운영했다.

를 CNN이 전 세계에 방영했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 문화어워드에서 전주문화도시전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영국의 유력 언론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한국에서 음식으로는 상대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되

전주시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이어 열리는 스페인문화주간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즐기게 하고 또한 우리 문화를 스페인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산구, 14개 공원 분수대 시설 점검·청소 완료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공원 분수대가 가동됐다.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에 안장

공원 분수대는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황인홍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완산구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4회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주 1회 용수 교체, 매일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군산 주점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작성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인했다"며 "그에 따라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상값 사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당초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취하지 않은 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위상실혐의는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경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피고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

회 황 군수는 공판 직후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다. 힘들어 할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전북경찰, 차선도색 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시내 도로 차선도색을 부실 시공해 수억원을 가로챈 불량업체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에서 발주한 21억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 24을 수주,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모(40)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대표 B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유리자료를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신설도로가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측정 없이 준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또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C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장에서 A씨 등은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전체 공사 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도로 점검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 휘도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부실 공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LH

를 사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

조사결과 A씨 등 원청업체들은 '도장 공사' 관련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한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서도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47대 점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파업에 나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지역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를 점거한 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한국노동 전북본부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이들은 수십미터의 상공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전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47대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의 절반은 타워크레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만 작업이 안 되도 현장에 피해가 큰데 파업이 길어지면 규모를 추산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완산구, 6억원 투입 노후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총 6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내·외벽 도색, 지하주차장 LED조명교체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원대상인 완산구 권역의 109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아파트 준공 후 경과 년수와 세대규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32개 주택단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단지에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6회 연속 수술 예방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6월 3일에 심평원이 공개한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839곳에서 19종류의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수병원 종합점수는 96.5점으로 전체 평균 79.5점, 종별 평균 84.2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위 수술, 자궁적출술, 갑상선수술이 100점, 백내장 수술 99.5점, 유방수술이 99.3점을 받아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환자중심 치료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부안군 미취업자 대상 창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부안군 관광산업 연계형 창업지원사업]

모집대상 : 창업에 희망하는 미취업자 (나이제한 없음)

교육혜택

참여자 교육비 전액 무료 (마케팅, 회계, 법률 등 총 40시간) 창업 지원금 최대 1,300만원 지원

모집마감 : 2019.06.14(금) 17:00까지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메일: suyong2@kijeon.ac.kr (신청서제출 : www.kijeon.ac.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업설명회

장소 :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2019.6.13(목) 오후 2시

교육기관 : 2019.06.24~07.05 (총 40시간)

"사업설명회 참석인원 기념품 증정"

